

■ 신입회원사

1. LG텔레콤 (www.lgtel.co.kr)



LG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50년대에 통신산업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통신사업을 이끌어 왔다. 특히 1996년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LG텔레콤은 1998년 2월 CDMA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무선데이터 서비스 상용화에도 성공, 세계로부터 이동통신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동 중에도 인터넷 접속, PC통신 검색, 팩스 및 전자우편 송수신 등이 가능한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의 구현은 국내 통신환경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광중계국은 필요한 지역에 광케이블로 연결된 원격의 소형 안테나를 설치하여 기지국 하나 당 통화영역을 최대 12배까지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첨단 통신망으로, 光PCS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은 뉴스, 스포츠, 주식, 날씨 등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종합정보서비스, 뉴스, 증권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문자로 전해주는 종합문자서비스, 서울시내 및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교통정보서비스, 문자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알려주는 방송문자서비스 등 정보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연혁〉	
1996. 3	PCS 사업설명회 개최
1996. 6	개인휴대통신(PCS) 신규사업자 선정
1996. 7	LG텔레콤 창립총회
1996. 11	강남 역삼동 소재 중앙종합금융빌딩으로 본사사옥 이전
1997. 1	LG텔레콤 식별번호 019로 확정
1997. 5	PCS 주요 통신설비 설치 승인 획득
1997. 7	고객센터 개소
1997. 8	상용 시험서비스 실시(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제주)
1997. 10	전국 상용서비스 실시
1997. 11	019PCS, 가입자 20만명 돌파
1998. 2	세계 최초 CDMA 방식 PCS 무선데이터 서비스 개시
1998. 4	019PCS, 가입자 100만명 돌파
1999. 10	강남 역삼동 소재 LG강남타워로 본사사옥 이전
1999. 10	가입자 300만명 돌파

2. 모토로라반도체통신 (www.mot.co.kr)

1969년 달에 착륙하여 “인간의 작은 발걸음 하나, 그러나 인류가 성취한 거보”라고 외쳤던 닐 암스트롱의 생생한 육성이 지구에 전달된 것은 바로 모토로라가 개발한 우주통신용 무전기를 통해서였다. 모토로라는 1928년 폴 갈빈(Paul Galvin)에 의해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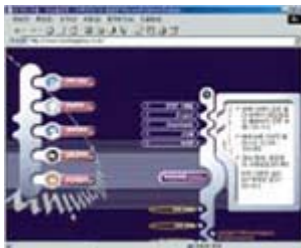
갈빈은 자본금 565달러로 종업원 다섯 명과 함께 시카고에 갈빈제조회사를 설립, 1930년대

에는 자동차용 라디오를 개발하여 '모토로라'라는 상표로 판매하면서 1947년부터 회사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사통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휴대용 핸드토키, 워키토키 등의 무선통신기기를 개발해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모토로라는 기술과 사람 그리고 경영의 조화를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기술과 제품을 창출하는 총체적 고객만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정신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실천되고 있다. 국내에는 1,850여 명의 직원들이 생산법인인 모토로라코리아와 영업법인인 모토로라반도체통신에서 활동하고 있다. 모토로라반도체통신은 책임경영 체제로 운영되는 11개 사업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 사업본부 별로 모토로라의 신기술, 신제품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제품판매와 설치, 애프터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혁〉	
1967. 3	모토로라코리아 설립
1967. 4	노무관리 시범 사업장 지정- 노동청장
1970. 7	석탑산업훈장
1972. 1	대통령표창(2,000만불 수출)
1979. 11	1억불 수출의 탑
1983. 1	무선호출기 생산
1985. 6	모토로라 인터내셔널 한국지사 설립
1992. 8	모토로라반도체통신 설립
1997. 10	모토로라코리아 파주공장 준공
1998. 3	모토로라코리아 기술연구소 설립

3. 모닝글로리 (www.morningglory.co.kr)



모닝글로리의 기본 목표는 상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다. 모닝글로리는 아침의 영광이란 뜻이며, 세계 속의 상표가 되려는 소망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우리가 각기 다른 얼굴을 갖고 있듯이 서로 다른 감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인 모닝글로리의 디자이너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닝글로리의 독특한 얼굴을 만들어간다. 살아있는 디자인! 그것이 바로 디자인 파워 그룹 모닝글로리의 얼굴이다.

한편 모닝글로리는 언제나 사랑 받는 좋은 품질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 속에 심어가고 있다. 94년 처음 문을 연 미국 L.A의 1호점에서 아프리카의 케냐, 호주의 시드니, 중국 광조우 그리고 100번째로 선보인 하와이 슝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120여 곳에서 빛나는 모닝글로리 슝의 불빛 하나하나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의 이미지와 희망을 심어나가고 있다.

<연혁>

1981. 6	신한교역상사 문구센터 개설
1985. 1	모닝글로리 브랜드로 상표등록
1987. 11	모닝글로리로 상호변경
1987. 9	모닝글로리 인천공장 설립
1990. 5	우수디자인 상품선정(GD마크 획득)-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991. 9	모닝글로리 자체 브랜드로 수출업무 개시
1992. 8	유망수출 기업 선정(대한무역진흥공사)
1994. 6	모닝글로리 해외 습 1호점 오픈(LA PLAZA)
1995. 3	마케팅프론티어상 수상- 한국마케팅학회
1995. 11	제1회 세계화 우수사업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6. 2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수상
1996. 3	재정경제원 장관상 수상
1997. 3	제24회 상공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1998. 5	모닝글로리 해외 습 100호점 돌파(하와이 4호점)
1998. 9	해외 습 100호점 돌파 기념 제1회 모닝글로리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개최
1999. 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http://www.morningglory.co.kr
1999. 8	모닝글로리 미주지역 현지법인 설립
1999. 11	제1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 경영 우수상 수상

4. 새한 (www.saehan.co.kr)



새한이 꿈꾸는 미래상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다. 사원, 주주, 사회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결국 창조하는 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을 이루려면, 핵심기술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한다.

새한의 미래사업은 정보 미디어, 전략 소재, 생활서비스 산업이다. 정보 미디어와 전략소재 사업은 핵심기술의 보유 여부에 따라 기업의 사활이 좌우되는 기술과 정보집약 사업이다. 새한은 모든 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 갖고 싶어하는 기술, 어떤 제품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기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새한은 1995년 8월 그룹으로 출범한 이래 변신을 거듭해 왔다. 이미 90년대 들어서 새한은 제2창업 도약에 불을 지폈다. 인도네시아에 합작사를 설립하고 편광필름 전문업체인 에이캠을 설립하는 한편, 차세대 시장인 환경사업, 에너지 분야의 전지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계 공인의 각종 규격과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갖췄다.

특히 97년에는 구미2공장을 완공하여 세계 10대 폴리에스터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새한은 섬유, 필름, 소재, 환경과 전지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응용한 종합섬유

및 화학소재메이커로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다.